대리운전, 한달에 한번 '불금'에 부른다?

광주·전남북 운전자 금요일에 38.5%·20~22시 46.8% 최다 이용
안전 만족도 3.42점…대리운전자 대부분 4대보험 적용 못받아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실태조사'

광주·전남북 운전자 4명 중 1명 꼴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8시~10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는 356개로, 대리운전기사 5명 중 2명(41.9%) 꼴로는 3개 이상 업체에 속해 있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지역 대리운전업체는 광주 63개·전남 293개 등 356개로 조사됐다. 전국 업체는 3058개로, 광주는 2.1%, 전남은 9.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집계된 대리운전업체는 광주 101개·전남 266개 등 367개였다. 7년 사이 광주 업체는 38%(-38개) 감소했고, 전남은 10%(27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전남·전북 대리운전업체 15개, 대리운전자 74명, 대리운전 이용 경험자 5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월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본 운전자들의 4명 중 1명 꼴로는 한 달에 한 번 대리운전을 불렀다.

일년에 1~3회 이용한 운전자가 38.5%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25% ▲연 4~6회 21.2% ▲2주 1~2회 13.5% ▲주 2회 이상 1.9%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음주(94.2%)인 점과 맞물려 대리기사를 가장 많이 부르는 요일은 금요일(38.5%)이었다.

월~목요일 비중은 36.5%였고, 토요일은 15.4%, 일요일 3.8%, 기타 공휴일 5.8%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북 지역민 절반 가까이(46.2%)는 오후 8시에서 밤 10시 사이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밤 10시~자정 42.3%, 자정 이후와 오후 6시~8시는 각각 5.8%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대리운전자가 업무를 마감하는 시간대는 '자정~새벽 1시'가 35.1%로 가장 많았다. 새벽 2시대에 마감한다는 응답률도 21.6%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34.6%가 자신만의 단골 업체를 불렀지만 음식점주 소개 등으로 현장에서 부르는 운전자도 44.2%에 달했다. '단골 대리운전자'가 있다는 답변률은 3.8% 정도였다.

지역민들은 대리운전을 선택할 때 주로 보험가입 여부(51.9%)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인지도나 지인추천(각 15.4%), 비용(11.5%)을 선택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절반 정도(44.2%)는 대리운전자 인적사항이나 보험가입 여부를 공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은 대리운전 안전에 대해 5점 만점에 3.42점(전국 평균 3.30점) 점수를 줬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3.13점(평균 3.08점), 친절도 3.50점(평균 3.38점), 대기시간 3.37점(평균 3.32점) 등 전국 평균보다 후한 성적을 줬다.

대리운전 이용자 52명 가운데 15명(28.8%)은 추가요금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었고, 18명(34.6%)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통법규를 위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칙금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차주 전액 부담, 운전자-차주 일부 부담하는 비중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되도록 많은 '호출'(콜)을 받아야 하기에 5명 중 2명(41.9%) 꼴로는 3개 이상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있었다. 2개 소속은 27%, 1개 소속은 29.7%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관제 프로그램도 2개가 28.4%로 가장 많았고, 3개(25.7%)나 4개 이상(24.3%)을 쓰는 운전자도 있었다. 평균 사용개수는 2.8개이다.

대리운전자들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35.1%·복수응답)을 이용하거나, 시내·시외 심야버스(35.1%)로 퇴근을 했다. '개인차로 2인 1조 이동' 32.4%, 택시 25.7%, 업체 셔틀버스 24.3%, 도보 9.5%, 자전거 2.7% 등을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대리운전자들의 대부분(95.9%)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카카오T 대리운전자 등록현황에 따라 추산한 전국 대리운전기사는 16만 3500명 수준이다.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하면 누구나 일할 수 있어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리운전 기본요금을 1만2000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시장 규모는 약 2조7672억원에 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풍 맞은 섬초로 몸보신 하세요"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 식품관에서 '겨울철 보양 채소'로 불리는 해풍 맞고 자란 섬초(시금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2.59 (+49.09)
↑	코스닥	873.29 (+3.11)
↓	금리(국고채 3년)	0.955 (-0.008)
↓	환율(USD)	1110.40 (-3.90)

한전KDN, 품질경영대회서 10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한전KDN이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10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23일 한전KDN은 최근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우수기업 1등급에 선정되고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1997년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국제품질 규격 인증 등 지속적인 품질경영을 추진해왔다.

공기업 최초로 ISO/IEC 20000(IT서비스)과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기도 했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는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한전KDN은 이 대회에 IT기업 최초로 출전했다.

'자유형식' 분야에 출전한 K-사피엔스팀은 '유지보수 비용 지불 업무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을 주제로 은상을 받았다. '6시그마' 분야에 출전한 아미고(AMIGO)팀은 '다기능 데이터 집중장치 개발로 검침 성공률 향상'이라는 주제로 동상을 수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양에너지, T맵 기술 적용 도시가스 관제 특허 출원

㈜해양에너지가 SK텔레콤 '티(T)맵' 기술을 적용한 상황관제 시스템을 특허 출원, 상품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에너지 기기 판매, CNG 충전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해양에너지가 개발한 시스템 이름은 'HY-SR+'(도로 위에 안전을 더하다)이다. 이 기술은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했다.

사용자 업무수행 편의와 교통안전 사고예방 등을 목표로 개발됐다.

해양에너지는 '티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에 적용했다. 이는 현장에서 매설배관 정보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안전점검원이 차량을 이용해 공급배관을 순회점검할 때 각 시설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정보를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받는 방식이다.

해양에너지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했으며, 업계에서 동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산하 혁신센터 국내 설립 추진

여운환(가운데) STS&P 조직위원장이 지난 20일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와 한국 글로벌혁신센터(GIC)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STS&P 조직위원회 협약 체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산하 글로벌혁신센터(GIC) 국내 설립이 추진된다.

민간협의체인 STS&P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여운환)는 지난 20일 열린 '2020 K-방역 전시회 및 컨퍼런스' 행사에서 UNOPS와 글로벌혁신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향력 있는 스타트업(창업기업)을 키워낼 이 센터는 내년 상반기 본격 업무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서에 서명한 여운환 조직위원장은 "한국 글로벌혁신센터는 국제적인 혁신 기업가들을 배출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며 "기술, 지식, 네트워크, 시장, 투자를 연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 글로벌혁신센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등에 지부를 설립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